



2021 경상북도청소년 정책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시대

청소년 활동·정책의 새 패러다임

2021. 10. 30 토요일 오후2시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LIVE**

경상북도 청소년정책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시대 청소년활동 · 정책의 새 패러다임

PROGRAM

- ◆ 일 시 : 2021년 10월 30일(토) 14:00
- ◆ 장 소 :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경청TV”)
- ◆ 주 최 : 경상북도 /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 ◆ 프로그램

사회: 원정호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수련기획팀장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사전준비	13:00-13:50	50'	○ 사전준비, 점검	수련원
공식행사	13:50-14:00	10'	○개회식 - 개회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 경상북도청소년정책공유플랫폼 설명회	사회자
초청특강	14:00~15:00	60'	○ 포스트 코로나시대 청소년 활동 · 정책의 새 패러다임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박남기 교수]	애니셋 송출 경북청소년패스티 발 동시송출
도전 “퀴즈쇼”	15:00~15:30	30'	○퀴즈쇼 - 일반 상식, 역사, 청소년 관심사 등 퀴즈쇼 진행	유튜브 생방송
기조발제	15:30~16:00	30'	[기조발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청소년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강영배교수]	유튜브 생방송
청소년 정책 토론회	16:00~16:15	15'	[토론1] 환경변화에 대한 현장대응 사례 발표 및 제언 ○청소년 활동분야 관련 토론 [송실사이버대학교 청소년코칭상담학과 손진희교수]	유튜브 생방송
	16:15~16:30	15'	[토론2] 환경변화에 대한 현장대응 사례 발표 및 제언 ○청소년 상담 · 복지분야 관련 토론 [에스테스 힐링상담센터장 김경미]	유튜브 생방송
	16:30~16:45	15'	[토론3] 환경변화에 대한 현장대응 사례 발표 및 제언 ○청소년 시설 · 안전분야 관련 토론 [대구과학대학교 아동청소년지도과 박호문 교수]	유튜브 생방송
질의응답 및 종합정리	16:45~17:00	15'	○ 질의응답 및 종합정리 ○폐회	유튜브 생방송

기조발제

- ◆ **포스트 코로나19시대 경상북도 청소년 정책의
방향 및 과제** 2
강영배 //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라운드 테이블

- ◆ **환경변화에 대한 현장 대응**
 - I. **청소년 활동분야 사례 발표 및 제언** 19
손진희 // 송실사이버대학교 청소년코칭상담학과
 - II. **청소년 상담·복지분야 사례 발표 및 제언** 29
김경미 // 에스테스힐링상담센터장
 - III. **청소년 시설·안전 분야 사례 발표 및 제언** 34
박호문 // 대구과학대학교 아동청소년지도과
 - IV. **질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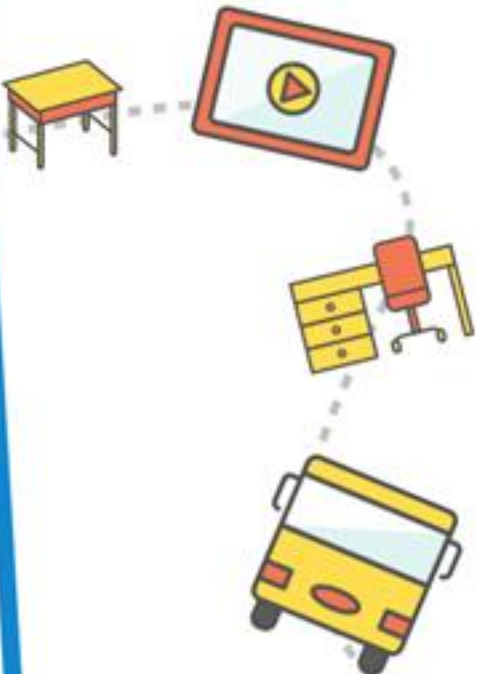

경상북도청소년정책토론회

기 조 발 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경상북도 청소년 정책의 방향 및 과제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강영배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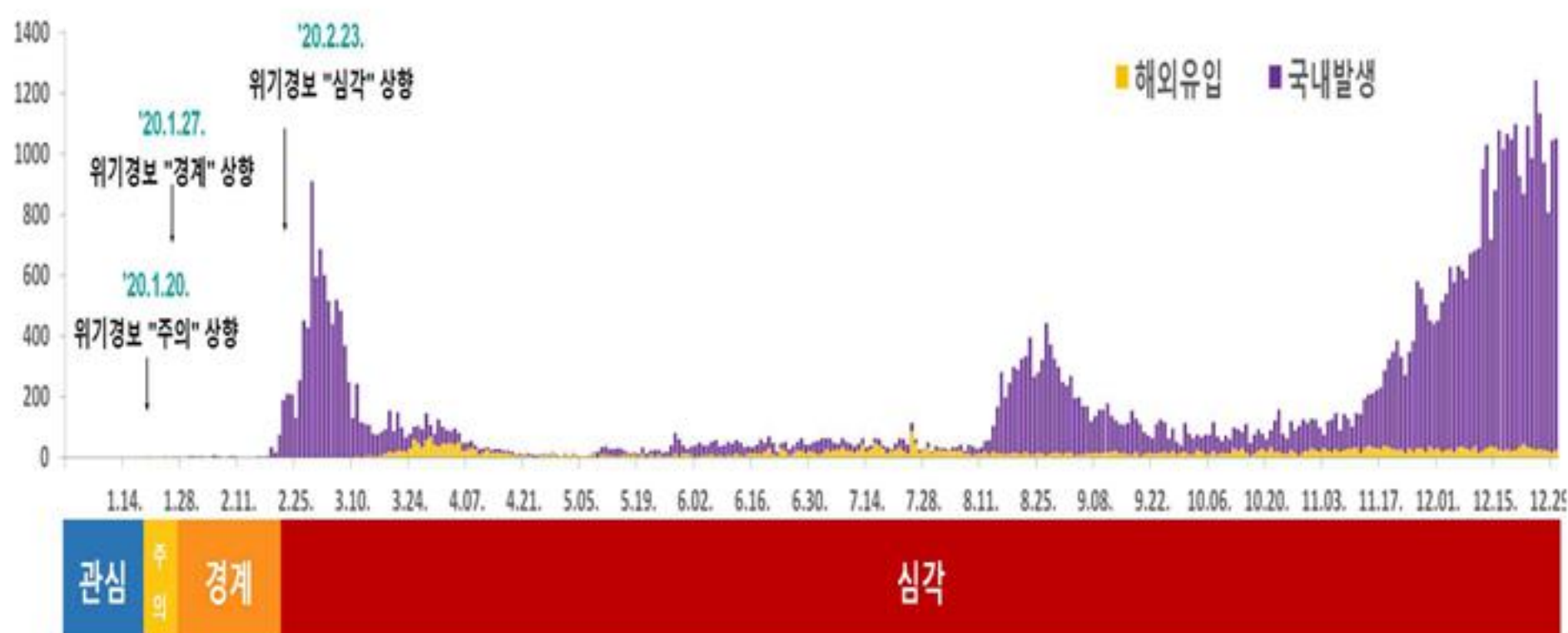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경상북도 청소년 정책의 방향 및 과제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강영배교수

I. 들어가며

1347년 10월, 페스트균에 감염된 쥐와 쥐벼룩에 의해 사람이 감염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한 흑사병(페스트, Black Death)이 유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으며, 이로 인해 유럽 인구의 30~60%에 달하는 약 7,500만명에서 2억 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이는 무시무시한 악몽과도 같은 현실이다. 이로부터 약 670년이 흐른 2019년 12월,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강타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¹⁾에 따르면, 2021년 10월 15일 현재, 코로나19 감염자수는 239,149,329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수는 4,873,805명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수는 339,361명, 사망자수는 2,626명이며, 경상북도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수는 8,717명, 사망자수는 91명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는 4차 유행을 지나 워드 코로나를 준비할 만큼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20. 12. 31.)

<그림 1> 우리나라 코로나19 발생추이(2020년 1월-12월)

코로나19는 청소년정책에도 변혁(變革)이라고 할 만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

1)출처: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2021년 10월 20일 인출))

이래, 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정, 2000년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 2014년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청소년정책은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리고 나름의 영역을 구축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허브로 하는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YS-Net)의 구축 및 운영 등 청소년정책 인프라도 갖추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활동, 상담 및 복지, 시설 및 안전 등 정책 전반에서 상당한 수준의 실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코로나19가 청소년들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던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청소년 정책 차원에서 어떠한 과제와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코로나19가 청소년에게 미친 영향

1. 코로나19가 청소년활동에 미친 영향

코로나19는 청소년활동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한다면 활동방식의 변화일 것이다. 즉, 기존의 청소년활동이 대면방식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의 활동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 및 방지 차원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장기간 휴관함으로 인해 종래와 같이 대면, 집합, 접촉 형태로는 체험활동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일종의 공여지책으로 언택트(untact)를 통해 청소년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비대면 형태’의 소통방식이 일상화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점차적으로 대면 활동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코로나19는 청소년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청소년지도자(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경험 연구를 실시한 장여옥(2021)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사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민감해진 방역활동에 대해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으며, 위기단계별로 활동방식(대면→비대면, 비대면→대면)과 활동규모 등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초기에는 청소년수련시설내에 비대면활동을 진행할 설비가 갖추어

한, 코로나19 상황 초기에는 청소년수련시설내에 비대면활동을 진행할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청소년지도사들도 비대면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해본 경험이 부족하여 장비와 공간을 갖추고, 새로운 장비와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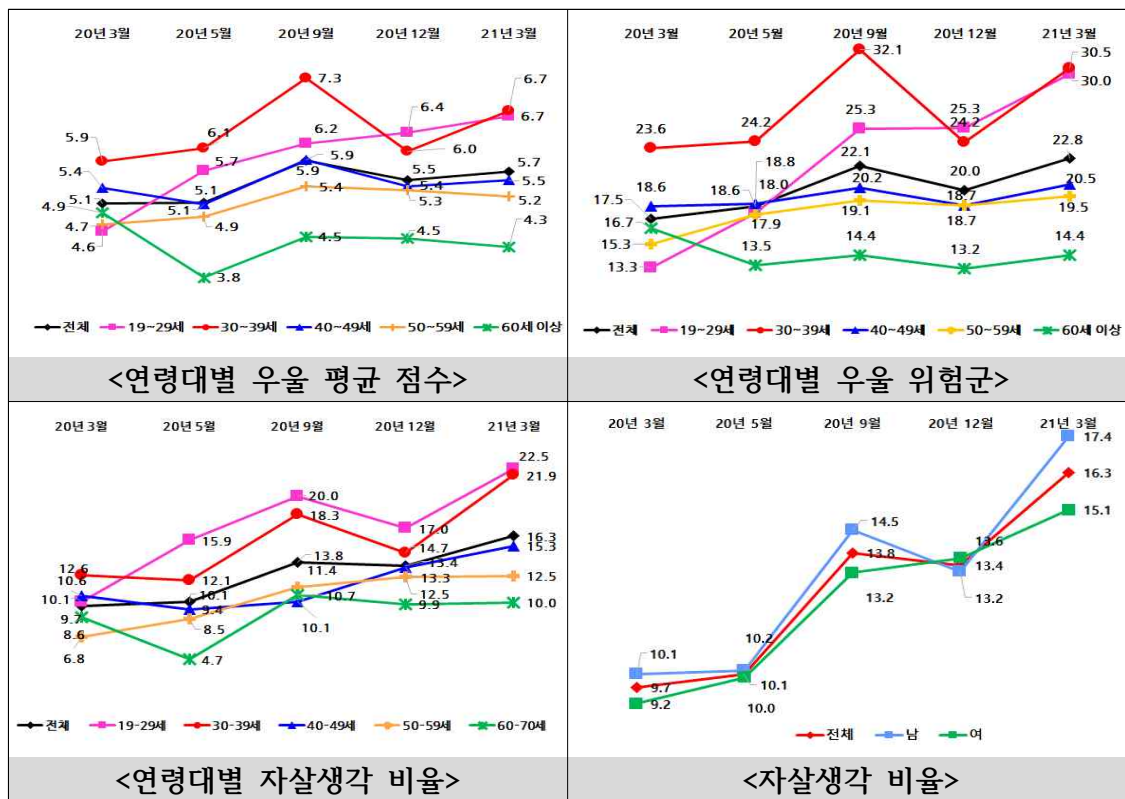
2. 코로나19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

이소희(202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코로나19 장기화됨으로 인해 “게임을 많이 하게 되고 늦잠을 자게 되고 TV도 많이 보게 돼요.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인터뷰 결과를 소개하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고 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청소년들에게 생활 리듬의 불규칙, 깨어진 수면각성주기, 활동저하로 인한 정서 행동의 불안정성 강화, 미디어 및 게임 과몰입 경향성 증가, 사회성 발달 제한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해 아동 학대 위험성이 높아졌으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족간 갈등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서 및 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5월 6일 발표한 2021년도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²⁾에 따르면, 이 조사에서는 19-71세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불안, 우울,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낙인, 일상생활 방해 정도, 심리적 지지 제공자, 필요한 서비스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30대가 타연령대에 비해 정신건강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0-30대가 타연령대에 비해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살생각도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25.0%로 전 성별 및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출처: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NT_SEQ=365582



<그림 2>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우울, 자살생각)

출처: 보건복지부 발표자료(2021년 5월 6일)

김현수(2021)의 논문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되었는데, 그 가운데 집중력의 저하, 조르는 행동의 증가, 수면장애, 악몽, 식욕 저하, 초조, 분리 불안 등의 증상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 또는 친구들이 언제 코로나19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것에 공포와 두려움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확진 경험자의 경우 격리 조치 등으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의 논문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우울, 기분 저하, 불면, 분노, 정서적 소진 등과 같이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SARS 등 감염병 대유행 시 격리된 아동 청소년의 30%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보였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김현수(2021)는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심리적 부담과 다섯 가지 트라우마로 첫째, 외로움, 우울과 연관된 고립 및 단절 트라우마, 둘째, 위생수칙 및 감염관리와 관련된 잔소리 트라우마, 셋째, 혼공, 혼밥, 혼할 등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생활 트라우마, 넷째, ‘제대로 한 것이 없다’라는 가족, 사회로부터 받는 결손 트라우마, 다섯째, 스마트폰 및 여러 중독과 관련된

중독 트라우마를 들고 있다.

최지옥(2021)은 코로나19는 청소년들의 장단기적 차원에서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는 청소년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학교, 지역사회에도 동시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환경 전체가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생태학적 영향력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청소년은 가장 취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사회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악화는 기존의 사회 불평등을 악화시켜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보호받지 못하게 만든다. 또한 이런 경우 가정 내 폭력과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3. 기타 영향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강좌의 비율이 높아지고, 자율학습에 대한 요구가 증대면서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증가하였다.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에 실시한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를 물어본 결과, 9세에서 24세 청소년 중 46.0%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45.9%였고 8.3%만이 학업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학교생활이 48.4%로 가장 높았고 가족관계가 9.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코로나19로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3> 코로나19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2021년 10월 20일 인출)

한편, 장여옥, 조미영(2021)의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정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우울감, 자해, 자살충동 등과 같은 정신병리적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기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며, 이러한 문제는 목표설정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진로선택의 불안으로 발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와는 달리 앞에서 언급한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의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이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가족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가족간의 친밀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는 청소년들의 가족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코로나19와 청소년 정책 분야의 대응

코로나19 상황은 종래의 청소년 정책 분야의 패러다임을 전환케 하는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도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에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청소년참여 및 활동 분야 정책 내용 가운데서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20년에 실시한 청소년참여 및 활동 관련 실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대면활동 중심의 청소년활동을 대면소규모 방식으로 전환·운영하였다. 특히,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으며,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에 ‘비대면 청소년활동’ 메뉴를 개설하였다.

둘째, 청소년들이 코로나19 공적마스크 구매를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 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였다.

셋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대상 온라인 교육을 확대, 운영하였다(19년 339명→20년 2,250명).

넷째, 사회안전망과 조기 연결을 위한 아웃리치(거리, 사이버)를 활성화하였다.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문요원을 확충배치하였으며(19년 90명→20년 108명), 거리상담 전문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집합·온라인화상 교육 19회 968명, e-러닝 교육 수강 79종 4,723명). 종래의 아웃리치 운영방식인 대규모 연합아웃리치 방식을 지향하고 지역별 소규모 아웃리치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다섯째, 방과후아카데미에서 긴급돌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돌봄 15.5만명, 급식제공 56.4만명, 학습지원 22.9만명). 비대면 온라인 활동프로그램을 개발 및 연계 지원하였다(국립청소년수련원 개발 콘텐츠 ‘메이커 교육 배달통’, ‘민주시민 청소년활동’ 31개소 823명 참여).

2021년도 청소년참여 및 활동 관련 정책적 대응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참여채널의 다양화를 위한 ‘청소년특별회의의 재구조화 및 활성화 방안’ 추진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특별회의 온라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소통팀 확대, 청소년참여포털(youth.go.kr/ywith)의 개선, SNS, 유튜브 등 청소년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매체 운영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둘째, 역량 기반 청소년 활동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청소년 역량 개발 강화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활동의 운영방식에 있어 STEAM, PBL, SW 교육, 메이커 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운영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활동에 있어 청소년들의 주도성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PBL식 체험 활동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사의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 시설·기관을 활용하여 청소년(청년)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을 위한 공간(고간)·기회 제공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청년)들의 사회진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사회적 경제활동 거점화를 추진(모의면접, 컨설팅, 교육 등)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시설 현장에서는 비대면 프로그램의 확충 및 방역 대책 수립 등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시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이 시설 및 단체 등에서 직접 만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점차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청소년 현장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청소년활동을 개발하여 운영할 뿐 아니라 비대면 청소년활동의 국가 인증기준 마련 및 인증 등 변화하는 시대에 청소년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1년 5월 6일을 기준으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의 ‘비대면 청소년활동 찾기’ 게시판에 등록된 비대면 청소년활동(또는 대면 방식과 비대면 방식을 혼합한 청소년활동)은 약 1,345개이며, 이 중 인증프로그램은 약 102개이다(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 2021년 5월 6일 인출)(문호영, 2021). 청소년수련시설의 방역 조치 노력 및 결과 등과 관련된 공식적 발표가 없어 확인은 어려우나,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 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 조치 노력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경우,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에서 어떠한 방역 조치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사례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1> 2020년 경북지역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결과

연번	지역	시군구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평가결과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가스
1	경북	포항시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최우수	B	A	B	A	A	적합
2	경북	경주시	국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휴지	B	A	C	점검유예	E	비대상
3	경북	경주시	(주)오케이그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민간	우수	B	B	B	B	A	적합
4	경북	경주시	서울유스호스텔(경주)	유스호스텔	민간	최우수	B	B	A	B	A	적합
5	경북	경주시	신라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최우수	B	A	A	B	B	적합
6	경북	경주시	포시즌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최우수	A	A	A	A	A	적합
7	경북	경주시	한국관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우수	B	B	B	B	A	비대상
8	경북	경주시	계림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최우수	A	A	B	B	B	적합
9	경북	경주시	리멤버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최우수	A	A	A	A	A	적합
10	경북	경주시	황룡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최우수	B	A	A	A	A	적합
11	경북	경주시	화랑마을	수련원	공공	최우수	A	A	A	A	A	적합
12	경북	김천시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최우수	B	A	A	A	A	적합
13	경북	안동시	하아그린파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최우수	A	A	A	B	A	비대상
14	경북	구미시	구미해평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휴지	B	A	A	B	점검유예	비대상
15	경북	영주시	영주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최우수	A	A	A	A	A	비대상
16	경북	영주시	아지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공공	우수	B	B	A	B	A	비대상
17	경북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공공	최우수	B	A	A	A	A	적합
18	경북	문경시	성보촌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민간	최우수	A	B	A	A	A	적합
19	경북	경산시	계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우수	A	B	A	A	A	적합
20	경북	군위군	군위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최우수	B	B	A	A	A	적합
21	경북	영양군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공공	최우수	B	B	B	B	B	적합
22	경북	영덕군	영덕군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공공	최우수	A	A	A	A	A	비대상
23	경북	영덕군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수련원	공공	최우수	A	A	A	B	A	적합
24	경북	영덕군	영덕 바다숲 향기말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공공	우수	A	A	B	A	A	비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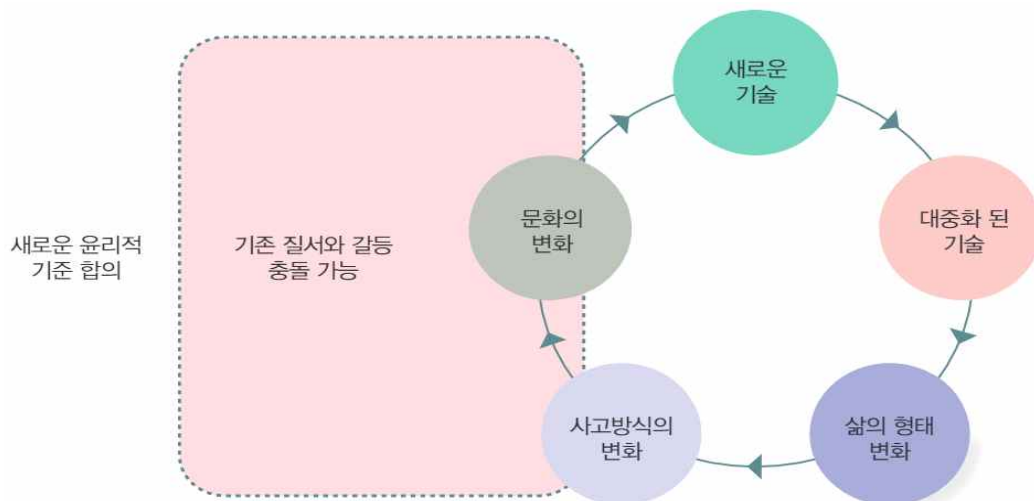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2021년 10월 20일 인출)

IV. 나오며: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정책의 과제

‘우리는 전염병으로부터 몇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다 같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제레미 리프킨(경향신문 2020년 5월 14일자)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뉴노멀(new normal)과 언택트(untact)라고 하는 새로운 일상을 가져다주었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안겨다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생명, 일상 그리고 이웃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으며, 이와중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여정을 떠나는 이들도 있다. 청소년계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도전과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진숙(2020)은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새로운 기술의 수용과 사고방식의 변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필자는 청소년정책 분야도 포스트코로나라고 하는 변화하는 시대 및 사회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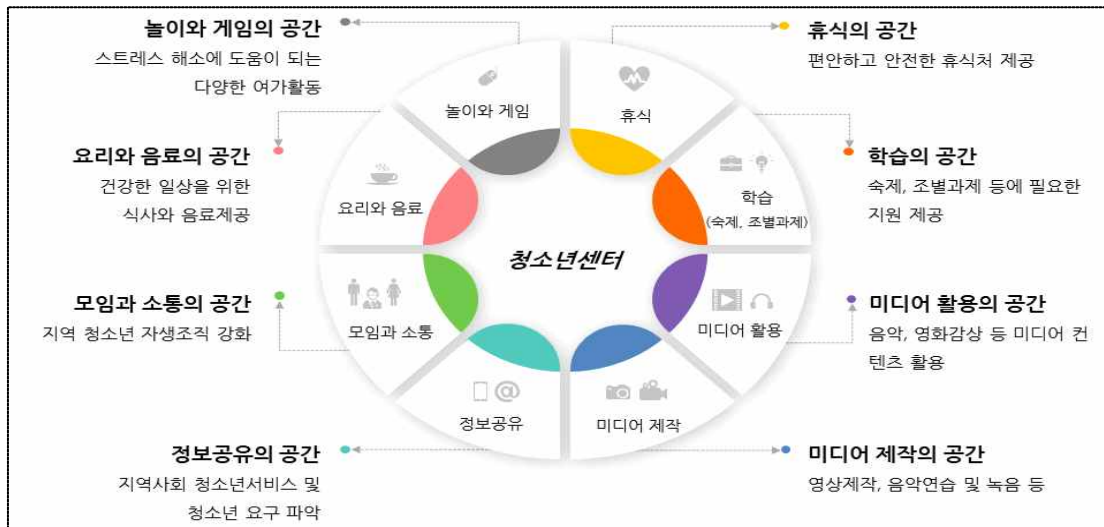
<그림 4> 기술의 대중화가 사고방식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순환구조

1. 청소년활동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실시한 문호영(2021)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활동 분야의 대응 방안을 몇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청소년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대면 청소년활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비대면활동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활동의 위기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전환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청소년활동은 대면 활동의 대안이나 대체 활동이 아닌, 어떠한 때라도 청소년의 활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방안의 일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비대면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서동학(2021)의 논문에서는 응답자의 94.5%가 비대면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비대면 청소년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수련시설을 비대면 청소년활동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 차원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소년기관의 디지털화 및 활동 공간의 재구조화 등을 통해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쉽게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 5월,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육성과 수련’에서 ‘성장과 체험’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간을 수요자인 청소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래의 청소년센터 주요 기능의 예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향후 청소년수련시설 공간 구성의 핵심키워드는 ‘소통’과 ‘공유’, ‘힐링’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 청소년센터 주요 기능(예시)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년 5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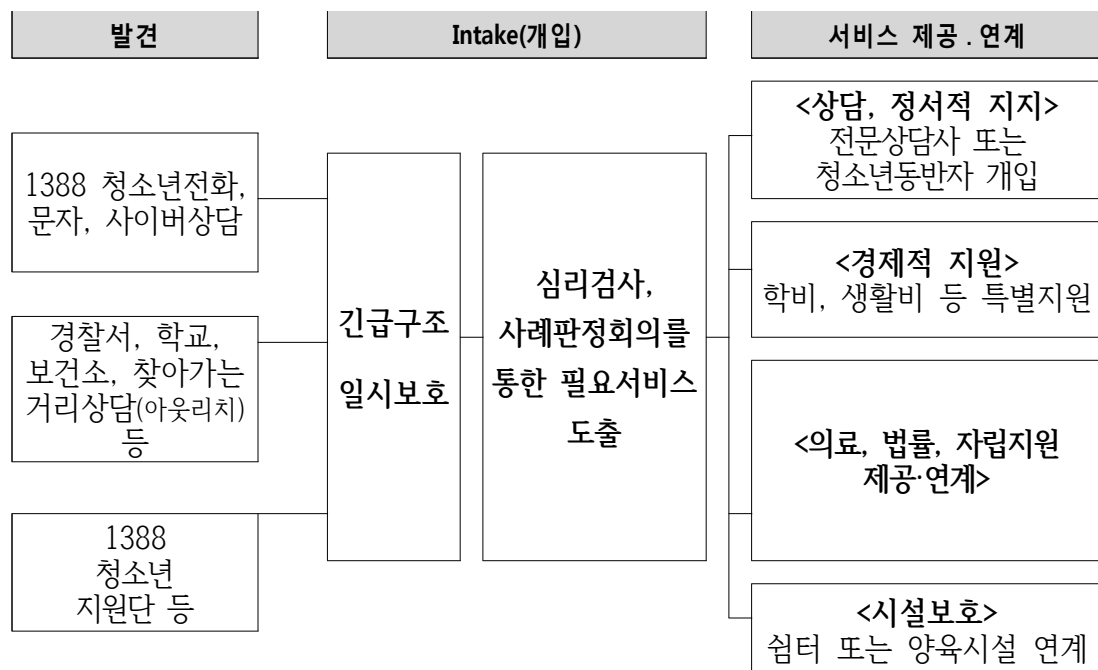
셋째, 대면 방식과 비대면 방식의 장점이 혼합된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활동을 확장하고,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전 청소년활동의 운영방식은 대면방식 위주였으며, 비대면방식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지도자들은 비대면 활동의 필요성과 유용성은 인정하면서도 장비의 부족, 네트워크의 불안정성, 콘텐츠 제작의 어려움, 업무의 과정 등의 이유로 비대면 운영방식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변화하는 시대, 사회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대면 및 비대면 운영 방식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하고 한계를 보완하며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청소년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아우르는 탄력적인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된다.

넷째, 비대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에게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문호영, 2020; 전영욱 외, 2021). 이들은 지도자들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으로는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 온라인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 역량, ICT화된 청소년센터의 운영 역량, 비대면 콘텐츠 개발 역량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비대면 청소년활동이 청소년들과의 긴밀한 상호작용과 소통을 더욱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공감 역량과 감성 역량 등의 강화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다. 전영욱 외(2021)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지도자들은 비대면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교육 지원과 프로그램 제작에 요구되는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상담 및 복지

첫째, 위기대응체제 및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채수미 외(2021)가 2021년 9월 16일에 발표한 논문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정책 방향’에서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기존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보완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에서는 위기청소년(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추진도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2021년 10월 20일 인출)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청소년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의 2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20년 9월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코로나19 상황과 관

련된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앞에서 언급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가족관계의 관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진로에 대한 불안 등에 대한 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 단위 또는 경상북도 차원에서 코로나19가 청소년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 가족관계, 학교생활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대면 상담추진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청소년활동 분야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상담분야에서도 뉴노멀 시대와 언택트 시대 상황에서 이전과 같이 대면 상담, 전화상담 방식에 추가하여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온라인상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래의 표는 2019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상담의 방법 가운데 사이버상담을 메일과 채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2019년 시점까지는 온라인 실시간 상담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아웃리치를 통해 상담사례를 발굴하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접근성이 취약한 청소년, 대면보다는 비대면상담을 희망하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Zoom, Google Meet 등과 같은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실시간 상담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표 2> 2019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단위: 건)

구분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 진로	성	성격	대인 관계	정신 건강	생활 습관/ 외모	컴퓨터 /정보 인터넷 사용	정보 제공	법률 정보	활 동	기 타	합계
개인상담		85,264	95,881	117,652	13,550	85,059	211,067	172,443	7,964	63,738	3,304	176	2,809	431	859,138
집단상담		42,822	218,677	179,211	24,173	51,533	610,451	164,020	3,562	164,684	17,362	2,170	46,101	443	1,525,209
전화상담		30,195	30,876	37,054	10,887	15,572	60,751	51,455	3,267	19,051	149,197	1144	4,260	28,920	442,629
심리 검사	개별	8,611	10,054	15,313	1,232	10,467	19,753	19,326	530	17,046	409	17	46	68	102,872
	집단	2,046	3,483	38,708	0	18,500	10,127	7,965	16	6,852	374	0	707	0	55,778
사이버	메일	2,925	956	8,142	2,022	1,374	11,018	5,474	1,670	273	2,217	109	59	66	36,305
상담	채팅	8,116	1,302	9,790	2,585	3,521	16,477	19,838	1,297	562	3,310	223	548	6,186	73,755

출처: 여성가족부(2021), 2020 청소년백서, p. 240의 내용을 재구성.

넷째,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한 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매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치유크amp’, ‘가족치유크amp’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캬프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대 사용으로 인해 과의존으로 일상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숙박형 형태로 운영되는 캬프이다. 약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본인의 직접 감염, 가족구성원의 감염, 기타 주변 사람들의 감염 및 격리 조치로 인해 상당 수준의 불안, 공포 등과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을 것이며, 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스트레스 장애 등을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이 연계하여 ‘인터넷 및 스마트폰과의존캬프’와 같이 ‘코로나19 고위험군 청소년 치유크amp’, ‘코로나19치유크가족캬프’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아졌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안전 및 방역

첫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방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에서 상시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항목에 ‘방역’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와 같은 감염병을 경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수련시설에도 금번 코로나19 상황을 일과성적인 문제상황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 관리해야 할 하나의 ‘위험요인(risk factors)’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장비, 물품 등을 준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림 > 대구시청 별관에서 시범운영중인 방역용 ‘이동식 협동 로봇’

출처: 영남일보 2021년 10월 19일자 보도자료

둘째, 감염병 상황을 예방 및 사후 대책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채수미 외(2021)는 감염병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법령과 지침에 대한 근거를 강화하고 그에 따른 권한, 업무내용, 업무 주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감염병 위기 시 조직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가지고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상북도 청소년 육성 조례’를 살펴본바,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청소년육성위원회와 경상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의 기능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감염병 발생 시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진숙(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요해진 역량, '디지털 시민성', 월간 공공정책 176, 22-25.
- 김현수(2021), 코로나19 이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에서의 변화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93-98.
- 김현철 외(2020),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성장지원, 연구보고 20-R2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호영(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 21-R2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동학(2021), 청소년지도자의 비대면 청소년활동 대응 실태 조사 연구: 수도권 지역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이소희(2021), 지난 1년간 코로나19 유행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장여옥(202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청소년지도사의 경험 연구, 한국청소년활동연구, 7(2), 47-71.
- 장여옥, 조미영(2021),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전문가가 지각한 위기청소년 지원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군포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2(3), 235-260.
- 전영옥, 손규태, 이미나, 이지은, 정은정, 조유담, 최선미(2021),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지도자의 경험과 요구되는 역량, 한국청소년활동연구, 7(1), 1-27.
- 채수미, 고든솔, 김혜윤, 윤강재, 최지희, 김효은, 김윤아, 탁상우, 강수진(2021),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정책 방향, 주간 건강과 질병, 14(38), 2700-2708.
- 최지옥(2021), 코로나19가 성인 및 소아청소년에 미치는 영향과 지원 방안, 신경정신의학, 60(1), 2-10.



경상북도청소년정책토론회

라운드 테이블

환경변화에 대한 **현장 대응**

좌장: 강영배교수

토론자: 손진희교수, 김경미센터장, 박호문교수



환경변화에 대한 현장 대응 사례 발표 및 제언(청소년 활동 분야)

송실사이버대학교 손진희

1. 코로나19와 청소년활동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이하, 코로나19)은 비밀(침방울)과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평균 1일에서 최대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난다(질병관리청, 2020). 전 세계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나타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에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서 세 번째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질병관리본부, 2020; 김현우, 2020 재인용). 2021년 1월까지 전세계 감염자는 97,389,010명(사망 2,111,341명)으로 치명률은 약 3.4%(WHO, 3.5 기준)정도이다(질병관리청, 2021).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는 2020년 1월 20일에 시작되어 2월 23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확진지역이 확대되고 확진자가 증가하자 정부는 전염병 재난 위기 경고 수준을 심각으로 격상하면서(질병관리본부, 2020), 광범위한 속도와 규모로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확진자와 의심 환자를 격리하였으며 추가 확산 억제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동안 지구촌을 지배한 획일적인 관행과 틀이 깨졌고, 새로운 일상의 기준 즉 뉴노멀 시대가 시작되었다(Roger, David, 2004). 코로나 뉴노멀은 비대면과 탈세계화, 불확실성 최소화 전략 등의 특징을 보이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비일상성 경험은 개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경기연구원, 2020. 5. 1). 사람들은 감염, 사망 등 절망적인 예측과 흥미 위주의 뉴스 보도에 지나치게 집착하고(박한선, 2015), 개인 방역 장비나 비상식량 등에 대한 사재기를 하기도 한다. 감염의 우려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기피하거나(박한선, 2020), 의심이 많아져서 주위사람들을 경계하고 외출과 외부활동을 줄이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개인 및 공적 일정을 취소하기도 한다(Lee-Baggley et al., 2004; Main et al., 2011). 또한,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이동훈, 김지윤, 강현숙, 2016 재인용),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보다 극심하고, 광범위하며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디스트레스를

유발한다(이동훈 외, 2016재인용).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즉, 비대면 언택트(untact)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보편화되었고(이미정, 2020),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통제 정책은 사회활동의 위축과 함께 사회 전반의 활력을 약화시켰다(손헌일, 김기욱, 허종배, 박충훈, 2020).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전면적이고 복합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김홍중, 2020). 전통적 사회 공간들(학교, 학원, 극장, 교회, 병원, 군대, 공연장, 피트니스 클럽, 술집, 스포츠 경기장, 식당 등)이 부분적으로 셧다운되었고,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면대면 상호작용이 온라인 소통으로 대체되면서 언컨택트(uncontact)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김홍중, 2020). 코로나19는 청소년활동도 변화시켰다. 2020년 2월 말부터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이 휴관하였고 대부분의 청소년 활동이 중단되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의 확산이 감소되면서 일상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대규모 단체 활동은 중단되었다.

<표 1> 14-19세 자원봉사 참여현황(실인원)

구분	2019	2020	~ 2021. 10
남	721,383	315,280	157,303
여	915,399	418,194	235,307
전체	1,636,782	733,474	39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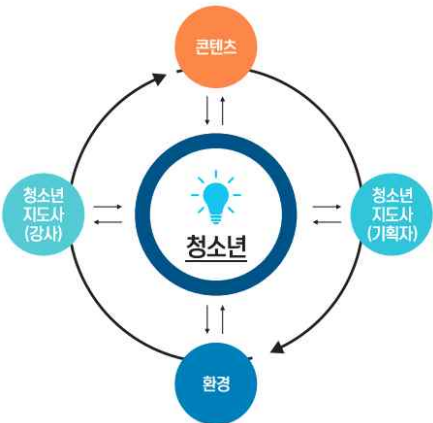
청소년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의 생활과 여가, 학교생활 등에 대한 요구와 필요, 실태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다. 청소년활동의 유지를 위해 비대면활동프로그램과 키트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유튜브와 줌 등을 활용한 비대면 활동이 진행되었다.

<표 2> 비대면활동 운영방식

구분	운영방식
딜리버리 (Delivery)모델	활동에 필요한 체험키트와 결과를 상호 배송하여 이루어지는 비대면활동
랜선 (lan線)모델	인터넷 환경이 중심이 되어 별도로 개선된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 등의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비대면 활동
스말로그 (Smalogue)모델	인터넷 환경에 중점을 두고, 인터넷 환경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활동을 대면 활동으로 풀어하는 비대면+대면 혼합활동
블렌디드 (Blended)모델	기존 대면 활동의 개념과 운영방식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참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대면 혼합활동

2.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청소년활동

비대면활동은 활동의 주체로서 능동적참여가 충분히 보장된 청소년, 청소년과 상호 작용하는 청소년지도사(활동 기획자, 강사), 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콘텐츠 (온라인 게시물, 영상, 미디어자료 등), 활동 운영의 맥락으로 작용하는 환경(영상과 음향의 강도, 인터넷 전송속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양시 청소년재단, 2021).



[그림 1] 비대면 활동 모형

출처: 고양시청소년재단(2021)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비대면 청소년활동이 진행되었다. 다음은 성공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활동의 모습이다.

<표 3> 비대면활동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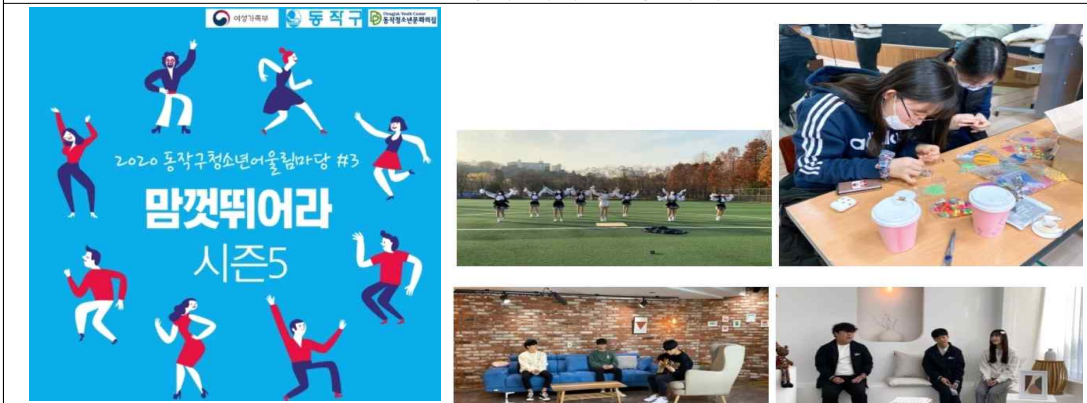
<p>1. 고양시 비대면활동 사례</p>



2. 시흥시 비대면활동 사례



3. 고양시 비대면활동 사례



4. 동작구 비대면활동 사례



5. 수원화성 비대면활동 사례

3.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청소년활동현장

지난 2년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디지털환경이 익숙한 청소년들을 위한 온라인활동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과 청소년활동이 대면활동을 중심으로 좁은 공간에서 밀집된 상태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많은 활동과 교육에서 줌(Zoom)이 활용된다. 청소년활동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줌일 것이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줌 피로(Zoom Fatigue)’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는데, 화상회의 통신망인 ‘줌(Zoom)’ 이용 후 찾아오는 정체불명의 피로감을 뜻한다³⁾. 미국 스탠퍼드대 제레미 베일런슨 교수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줌 피로’의 원인을 규명한 논문을 미 심리학협회 학술지 「기술, 정신, 행동」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화상회의와 수업이 심신을 지치게 하는 4가지 이유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줌 피로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눈 마주침’이다. 화상회의 때는 참석자 각자가 카메라를 응시하는데, 화면으로 보면 모두가 자신만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한 화면에서 여러 사람과 동시에 마주 봐야 하는 상황이 뇌에 부담을 줘 피로도도 상승한다는 것이다. 둘째, 화면 크기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화면에 비친 피사체가 클수록 물리적 거리가 가깝게 느껴져 긴장감이 높아지는 원리다. 연구진은 사람들로 꽉 찬 엘리베이터 안을 사례로 들었다. 좁은 공간에서 낯선 사람과 가깝게 붙어 얼굴과 눈을 마주친 상황이 그것이다. 셋째,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효과 때문에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상대의 비언어 신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 활동 범위가 촬영 공간으로 제약된다는 점도 줌 피로를 높이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2021년 10월 현재, 우리 사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개편을 시작하는데 1차 개편에서는 생업시설들의 운영제한을 완화하고 2차 개편부터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고 3차 개편부터는 사적 모임의 제한을 해제한다. 대규모활동이 금지되었던 청소년활동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활동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아래 제시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메타버스(metaverse) 또는 확장 가상 세계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다. ‘가상 우주’라고 번역하기도 했다. 이는 3차원에서 실제 생활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인 직업, 금융, 학습 등이 연결된 가상 세계를 뜻

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10920#home> 기사 참고

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 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한다.

로블록스는 전 세계 1억5,000만명 이용자가 로블록스를 즐기고 있으며, 미국 만 9~12세 어린이의 3분의 2, 16세 이하 청소년의 3분의 1이 로블록스의 팬이다. 응용 소프트웨어(앱) 분석업체인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10대들은 하루에 156분 로블록스에 접속하면서, 유튜브(54분), 인스타그램(35분)을 크게 앞섰다.

제페토는 현재 누적 가입자가 2억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80%는 10대 청소년 이용자다. 해외 이용자 비중이 90%에 달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

스마트학생복(2021)이 진행한 ‘메타버스(Metaverse)’ 콘텐츠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용 경험과 인식에서 ‘메타버스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은 ▲알고 있다(81.1%, 576명) ▲잘 모르겠다(9.9%, 70명) ▲들어본 적 없다(9%, 64명)라고 응답해 80% 이상의 학생들이 메타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메타버스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48%, 341명) ▲다양한 국적, 환경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22.7%, 161명)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14.4%, 102명) ▲현실보다 나를 좀 더 개성 있게 꾸밀 수 있다(11.8%, 84명) ▲기타(3.1%, 22명)라고 응답했다.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메타버스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을 잘 알고 있고 활용하는 것이다.

<표 4> 청소년현장에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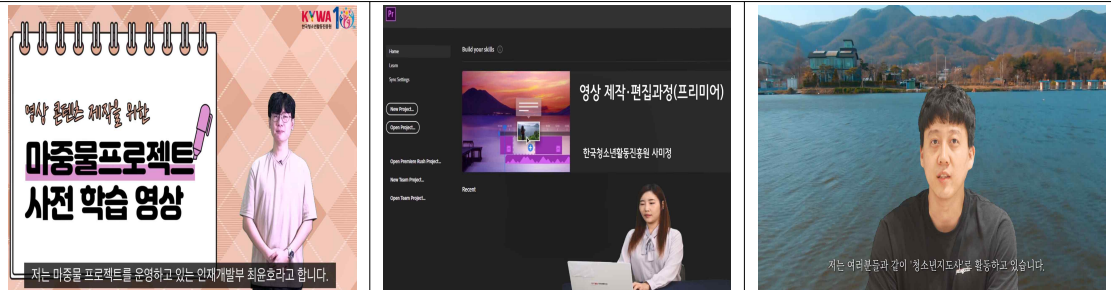


4. 위드 코로나 마중물 프로젝트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익숙해진 청소년이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대면활동으로 진행되는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이미 청소년들은 온라인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므로 위드코로나상황에서도 청소년활동은 대면과 비대면이 함께 진행될 것이다. 이에 청소년활동현장에서는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체계적인 청소년 활동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021년 마중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서는 비대면 청소년활동(교육) 콘텐츠 제작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멀티스튜디오 이용과 찾아가는 스튜디오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 2021년 마중물프로젝트 안내문

구 분	주 요 내 용
신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청소년활동(교육) 콘텐츠 제작 희망기관 ○ 촬영물의 활용 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관
촬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를 활용한 강의 형식의 촬영으로 진행될 경우 기본 강의안(PPT) 양식이 제공되오니, 기관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멀티스튜디오 및 찾아가는 스튜디오 지원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촬영 장비(카메라, 핀마이크, 촬영용 조명) - 대본 리딩용 모니터(찾아가는 스튜디오에서는 제외됩니다) - 크로마키 영상촬영 시스템 - 실시간 영상송출 시스템(Youtube, Zoom 활용) ※ 실시간 스트리밍 송출이 멀티스튜디오에서는 가능하나, 찾아가는 스튜디오는 섭외된 촬영장소의 환경에 따라 불가할 수 있습니다.
크로마키 촬영물 예시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최근 인천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한국메타버스연구원 유진 부원장 초청 메타버스 특강 진행했다. 해당 강의에서는 메타버스와 관련해 다양한 분야로의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 사회 각 분야의 실제 사례소개와 함께 메타버스 플랫폼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제페토, 게더타운, 이프랜드’를 활용해 보는 실습 시간을 가졌다.

경상남도에서도 청소년활동 홍보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메타버스 패러다임 이해와 사례, 메타버스로 구현하는 나만의 세상, 게더타운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지구의 환경파괴와 오염으로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현장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디지털 문해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 연수를 위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청소년활동, 상담, 복지 등의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치밀한 연계를 통해 청소년을 지원할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심리·정서적 개입

김경미(에스테스힐링심리상담센터 센터장)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정신 건강

코로나 우울(코로나 블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과 무력감)은 아동·청소년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우울함이 불면이 되고 점차 공황으로 발전하면서 급기야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혼공, 혼밥, 혼할까지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취약한 계층의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정신적 불안과 스트레스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통계청 자료에(2021.9월)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3.5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이 급증하였는데 10대가 9.4%, 20대는 12.8%나 늘었다. ‘청소년 1388’에 접수된 정신건강 관련 상담 건수 역시 2021년 8월 기준 14만1464건(월평균 1만7683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에 비해 30%나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된 것이 자살률 급증의 원인이라고 하겠다.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자 가족 간의 갈등이 증가했다. 특히 친구관계 단절과 외부 활동 감소로 인한 대인관계 위축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고립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9월부터 교육부가 전면등교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코로나19로 인한 1020 자살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니세프의 ‘세계아동 현황 보고서(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는 2021년 코로나19의 봉쇄와 고립으로 고통받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다루었다. 전 세계적으로 최소 7명 중 1명의 아동·청소년은 코로나 19 봉쇄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16억 명 이상이 교육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1개국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은 종종 우울함을 느끼거나 무언가를 하는 데에 조금의 흥미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일상, 교육, 여가 활동의 제약과 가계소득의 감소, 감염과 백신접종 등 건강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분노와 좌절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는 청소년들에게 생활 리듬의 불규칙, 깨어진 수면각성주기, 활동저하로 인한 정서 행동의 불안정성 강화, 미디어 및 게임 과몰입 경향성 증가, 사회성 발달 제한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해

가정 내 폭력과 학대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졌으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서 및 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상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감 및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특별 게시판상담실을 오픈하여 코로나19에 의한 불안, 무력감, 나태함 등의 고민을 호소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상담 이용이 어려운 청소년과 부모를 위해서는 1:1 비대면 온라인 정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전문 채팅상담 '잇는채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잇는채팅' 상담서비스는 상담을 신청한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자와 1:1 전문 심리상담이 이루어지며 최대 10회까지 무료 온라인상담이 지원된다. 이밖에도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등교,개학 지연으로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고민하는 부모를 위해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모용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조절 가이드>와 <건강한 미디어 사용가이드 동영상(초등저학년)>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 외에도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및 코로나 19로 인한 심리적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시도 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의 상담 건수도 코로나 이전 보다 늘어난 추세이며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상담 및 대면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담의 특성상 비대면 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제한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짐 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경우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상담내용 중 자살과 자해 청소년 상담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자살·자해 청소년 상담 시 힘든 점에 관한 질문에서 부모의 태도, 상담자의 불안, 종결시점 결정하기, 내담자 요인, 상담자 소진으로 다섯 가지 요소가 추출되었다. 현장 전문가들에 의하면 상담진행 시 부모의 비난, 부모의 무관심, 역기능적 부모의 태도는 상담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등장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상담의 효과를 제한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상담 장면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협조요청을 하는 방법 말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담자들의 에너지 소진은 물론이고 내담자의 자살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지원 하고 있는 상담자로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대로 인한 자해 및 자살 시도를 하는 고위험군 청소년 상담 시 청소년

자체는 상담 진행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추세이나 부모들이 사례개입 거부를 강하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고위험군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적 개입이 원활하게 진행 되지 못하고 중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현재는 형사적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미한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과 부모 모두 사례개입을 통해 심리정서 지원 및 교육을 진행 하고 있지만 소극적으로 참여 하거나 사례개입을 거부 하는 형태가 많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부모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아동학대 관련 피해 청소년들을 상담 할 때마다 통합사례나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지만 상담 및 사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담공무원, 경찰, 상담원 함께 근무하는 통합 지원 체계 도입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제행동 청소년(비행, 자해, 불안, 우울 등) 중 학대피해 아동 치료보호시설 확충 필요하다. 현재는 청소년쉼터나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치료적인 접근이 미흡한 편으로 앞으로 치료보호시설이 확충 될 필요가 있다.

넷째, 상담현장에서 임금이나 근로여건 열악으로 인해 임상심리사 및 심리치료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보니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기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위드 코로나시대의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중심의 정책 제언

대구과학대학교 아동청소년지도과 박호문 교수

I. 들어가는 말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중점사업의 목표설정과 시설관리자의 안전관리계획 및 규정의 심사 등을 점검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청소년활동안전센터)에서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참석토록하고 있으며 특히, 종합 안전점검 분야별 결과가 중간등급 이하(C, D, E, 부적합) 시설의 관련분야 종사자는 필히 참석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시설개·보수와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에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 위생점검, 식당관리, 대피훈련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에 대한 실효성과 위드 코로나시대의 안전관련 정책의 내용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으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구분	관계법령	점검대상	점검주체(기관)	점검주기
소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 소방대상시설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등 특별점검 : 소방서	연1회 이상
전기	전기사업법	전기설비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	시설 사용전 점검 및 3년 1회 이상
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설비	시장·군수·구청장 (한국가스안전공사)	반기별 1회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용시설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연1회
수질	수도법	저수조	지방자치단체	반기별 1회 이상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영장 수질	수련시설	반기 1회
시설물 전반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월1회 이상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2,3층 시설물)	관리주체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유지관리업자)	시설물 안전등급에 따라 상이함

<표 1> 주요 개별법에 의한 법정 점검

교육명	교육대상		관계법령	교육주기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전직원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연2회 (상시근로자 11인 이상의 경우)
		(수련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연1회 (상시근로자 11인 이상의 경우)
집단급식소 위생교육	영양사, 조리사		식품위생법 제56조	2년
의료인 보수교육	간호사		의료법 제30조	매년
소방안전관리교육	소방안전관리자 (공공기관)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최초 선임시
전기안전관리교육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사업법 제73조의 4	기술교육-3년 특별교육-최초선임시 6개월 이내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2년
고압가스 안전관리교육	고압가스선임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3년
성희롱예방교육	전직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연1회 이상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전직원		아동복지법 제26조	매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운전자/ 운전자 / 동승보호자		도로교통법 제53조의 2	신규/ 정기(2년)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정기
근로자안전보호교육	전직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별표3 참조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전직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매년 1회(1시간) 이상
긴급복지지원신고 의무자 교육	전직원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매년 1회(1시간) 이상

<표 2> 주요 개별법에 의한 법정 안전교육

II.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 제고

1. 청소년수련시설 내 위험시설물에 대한 전문관리 체계 구축

청소년수련시설 내 체육활동장에 포함된 실내암벽장(인공암벽, 크라이밍월), 챌린지 코스, MTB코스, O/L⁴⁾코스 등 일부 시설물 등은 공인 규정 및 별도 시설기준이 없어

4) OL : orienteering을 뜻하며 나침반과 지도만을 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야외스포츠임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전에 해외에서 수입한 특수 시설물의 경우, 국내에서의 관리 전문인력과 수리·점검 업체의 연계가 만만치 않아 설치 이후에는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다. 이에 개선 및 운영 방안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않거나 경기단체 등의 시설 공인규정이 없는 위험 수련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며 해당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설치 현황 파악 후 설치기준 및 점검기준 등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레저스포츠 시설·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안전·검사기준 등에 대한 공통 법적 관리기준은 「레저스포츠활성화에 대한 법률」(현재 국회 계류 중) 제정 시 그 결과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반영·운영이 되길 기대해본다.

2.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

청소년 수련시설은 정기·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은 이러한 안전점검을 실시 후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⁵⁾’에 의해 월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에 결과를 보고, 각 지자체는 관할 수련시설에 대해 상/하반기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에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건축, 토목, 가스, 전기, 기계, 소방설비 분야의 종합안전점검을 시설 유형별로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여름철 대비 등 특별안전점검(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중독 등 위생분야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지역소방서에서도 소방분야를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내용

- 안전관리체계 및 교육 : 자체점검 및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
- 토목부분 : 진입로, 옹벽·석축 및 담장, 사면, 배수로 등에 대한 점검내용
- 건축부분 : 구조, 주출입구, 현관 및 로비, 복도, 계단, 생활관, 화장실, 양호실,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실내수영장, 모험시설 등에 대한 점검내용

그러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이 지자체에 결과를 제출하기 위한 형식적 문서작업에 그치고 있는 부분과 점검 실효성이 저조한 계

5)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제8조의2 (별표 4)

현실이다.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점검을 생략하기도 하고 안전점검표에 의례적으로 ‘적합’으로 작성하여 정례적으로 제출하는 등 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 A수련원의 경우, 개원 이후 매월 제출한 안전점검표에 한차례도 ‘부적합’ 제출이 없었으나, 중도에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일부 시설물 보수작업 실시

▲ B수련관은 ‘안전점검표’상에 일부 사항(계단 추락방지용 그물망 및 논슬립 설치 등)이 완비되지 않았음에도 상시 적합으로 제출

또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기점검 또한 인력 및 전문성 등의 한계로 인하여 사전 점검을 통한 안전성 담보가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다. 건축, 전기 등 일반 시설분야와 달리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야 하는 소방분야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 시설물(야외 활동시설-레펠, 암벽등반 등)의 경우, 점검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수련시설 자체 안전점검에 대한 현장 실사, 조치결과 의무 통보 등 피드백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안전점검 이행이 필요하다.

둘째, 일선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결과를 의무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상/하반기, 해빙기 등 정기 안전점검 시 감독기관 교차점검 등 점검 방식 다각화를 통해 점검인력 확충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

셋째, 업무협약 등을 통해 각 지자체 점검권역을 책정하여 감사관, 소방관서, 시설 담당 공무원 등으로 팀을 구성, 타 권역 시설 교차 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소방, 암벽등반 시설 등 특수시설물 등은 전문성 등의 한계로 기초지자체별 개별점검이 어려운 점을 감안, 경북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광역차원의 실시계획 마련, 합동점검 시행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Ⅲ. 맺는 말 : 위드 코로나와 청소년 안전정책의 과제와 제언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맞춰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안전교육 콘텐츠, 생방송이나 사용자 선택형 영상 등 온라인 기반의 쌍방향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을 대폭 강화한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국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고 있으며, 특히 안전체험

관 등 기존 체험 시설의 이용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기반의 안전교육 콘텐츠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림 1> 심폐소생술, 화재 등 가상현실(VR) 활용한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예시 [출처] 행정안전부

한편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는 코로나19백서를 발간하여 위드 코로나시대에 적절한 ‘안심개관을 위한 시설점검’에 따른 방역활동 및 환경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역안전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에서도 위드 코로나시대에 대응하는 안전분야에 방역과 관련한 세부지침 마련이 추가로 필요해 보이며 향 후 전염병과 관련된 재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을 기반으로 이를 적극 활용한 코로나19방역안전, 심폐소생술(CPR), 화재 및 지진 대피 등 가상현실 기술 등을 적용하여 교육 효과가 높은 안전 소재를 발굴해 비대면 기반의 체험형 안전교육 콘텐츠를 병행해 나가고 단순한 정보 전달식 안전교육 영상이 아닌 자기 주도를 통한 흥미 유발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여성가족부(2021), 2021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73-74.

여성가족부, 교육부(2014),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청소년안전활동 보장을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 관리운영 개선방안, 제 2014-264호.

성남시청소년재단(2020), 코로나19운영백서, 75-86.

행정안전부(2021) <https://blog.naver.com/mopaspr/222158397091>